『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32170805 김예원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정의’에 신성성을 부여한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이야기 속의 ‘정의의 사도’ 부터 시작해 사람들은 매우 어린시절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과거의 진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쓸모 없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나 심지어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개념을 향유하는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개념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무적의 개념처럼 보인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자 한다.

그는 각 장의 첫 테마에서는 인문학도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 철학자와 그의 대표적인 논리에 대해 다룬다. 예시로 2장의 초반부에서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 소개한다. 양적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 내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수결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뒤 이은 테마에서 샌델은 과연 벤담의 공리주의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개인의 권리와 행복의 가치의 동등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리주의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벤담의 뒤를 이어 등장한 존 스튜어트 밀은 양적 공리주의자였던 벤담과는 달리 개개인의 선호가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질적 공리주의자였다. 밀은 벤담이 놓친 부분에 대해 보완성을 갖는 공리주의자였지만, 샌델은 밀의 철학에도 역점이 있다는 사실을 각종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범인들에게는 명성있는 철학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않다. 유아기때부터 해온 행위의 연장선과 같이, 특히나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젊은이들이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공리주의가 현실의 상황에 반영되었을 때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범인은 비로소 자기를 싸고있는 막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샌델은 책에서 정의에 대한 통념을 뒤흔든다. 혹자는 이를 두고 샌델은 과거 철학자의 사상을 비판하기만 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정의의 개념을 와해시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거나 개인의 가치관에 혼란을 두는 것에 있지않다. 그는 정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반추하기를 원한다. 이로 하여금 더 나은 정의,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꿈꾸는 것이다.